



보도시점 2024. 9. 3.(화) 08:30 배포 2024. 9. 2.(월)

※ 엠바고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‘K-뷰티’ 수출상담회 성황리 열려...184억원 상담

- 재외동포청·인천시 개최 행사에 13개국 해외바이어 19명 참가
- 45억원 계약 체결 성과도...“해외판로 개척 기회 제공해줘 감사”

- 재외동포청(청장 이상덕)과 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‘K-뷰티 수출상담회’에서 184억원의 상담 성과를 올렸다고 2일 밝혔다.
- 두 기관은 지난 8월29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‘2024 세계한인 비즈니스포럼’을 개최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증대 및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대행사로 수출 상담회를 열었다.
- 일대일 비즈니스 사전 매칭 방식으로 진행한 상담회에는 13개국 19명의 해외바이어와 국내 45개 기업이 참여했다.
- 상담회 취합 결과, 총 113건의 상담이 진행됐고 184억 원어치의 상담과 함께 계약 예상액 45억 원 상당의 성과를 달성했다.
- 또 5억 6천만 원 규모의 업무협약(MOU) 2건도 체결했다.
- 특히, 이번 상담회는 각 기업의 특성과 바이어의 수요를 미리 파악한 ‘맞춤형 상담’으로 참가 기업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.

- 상담회에 참여한 한 국내 기업인은 “해외바이어들과 직접 만나 현장에서 제품을 소개하고 수출계약을 논의할 수 있는 해외판로 개척 기회를 제공해 준 재외동포청과 인천시에 감사한다” 고 소감을 밝혔다.

□ 두 기관은 수출상담회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‘K-뷰티 확산과 한인 비즈니스 동반 성장 전략’을 주제로 ‘2024 세계한인비즈니스포럼’도 열었다.

-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은 포럼 개회사에서 “우리 청은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분야의 리더인 재외동포 경제인 약 200분을 모시고 ‘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 (OK Biz)’을 발족한 바 있다”며 “그 첫 번째 프로젝트가 오늘의 행사”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.
- 황효진 인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환영사에서 “인구 300만을 돌파한 인천은 성장의 도시이자 제2의 경제도시, 인천공항과 함께 국제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. 또 제3의 개항을 통해 글로벌 톱 10도시로 도약하고 있다”며 “이번 행사는 재외 한인 경제인분들을 통해 중소기업이 세계와 연결되는 자리”라고 평가했다.
- 한국화장품협회 회장인 권용수 (주)L&K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“2024년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은 3조 2천억원을 넘어섰다. 수출시장도 다각화돼 무려 175개국에 수출한다”며 “K-뷰티 산업은 세련된 디자인과 혁신적인 마케팅을 통해 빠르게 성장했다”고 역설했다.

□ 행사를 공동개최한 재외동포청과 인천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재외동포 한인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. 끝.

담당	재외동포청 교류협력국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	책임자	과 장	이경아	(032)585-3220
		담당자	사무관	신선경	(032)585-3221
담당	인천광역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투자유치과	책임자	과 장	김건호	(032)440-5090
		담당자	한인비즈니스팀장	조영희	(032)440-1511